

# 방시혁 “방탄소년단 성공, ‘불타오르네’ 이후 예감”

### 미국 대중잡지 버라이어티 인터뷰

방시혁 빅히트엔터테인먼트 대표가 버라이어티와 인터뷰를 진행하며 기업 철학을 밝혔다. 소속사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방시혁 대표가 미국 대중잡지 버라이어티(Variety)와 진행한 인터뷰가 지난 4일(이하 현지시간) 웹사이트에 게재됐다. 이번 인터뷰는 9월 초 방 대표가 미국 로스앤젤레스 일정 중 진행됐다. 앞서 방 대표는 지난 5월 버라이어티의 ‘인터내셔널 뮤직 리더’로 2년 연속 선정된 바 있다.

버라이어티는 방시혁 대표를 “팬들에게는 K팝 슈퍼스타 방탄소년단을 키워낸 인물로 알려져 있지만, 한국 음악산업의 베테랑 프로듀서이자 기업가”라며 “빅히트 엔터테인먼트를 글로벌 규모로 영역을 확장시키고 있다”고 소개했다.

인터뷰에서 방 대표는 ‘기업의 리더로 스스로



를 어떻게 보는가’라는 질문에 “훌륭한 비즈니스맨보다는 좋은 리더에 가깝다”며 “나는 기본적으로 ‘아티스트’이므로 결과나 성과보다는 우리가 ‘무엇을’ ‘왜’ 하고 있는지 등에 대해 논의하며, 이것은 빅히트의 기업 미션(Music and Artist for Healing, 음악과 아티스트를 통해 사람들에게 위로와 감동을 준다)에 반영돼 있다”고 밝혔다.

또한 방 대표는 지난달 21일 서울에서 열린 ‘공동체와 함께하는 빅히트 회사 설명회’에 관한 질문에는 “게임 분야 등으로까지 확장하는 빅히트의 모습을 보고 많은 오해가 있는 것 같아 회사가 추구하는 가치에 대해 설명할 필요성을 느끼게 됐다”며 “(게임 같은 경우) 거대한 게임은 넷마블 같은 회사와 협업이 필요하지만, 작은 규모의 게임은 우리 생태계에 기여해야 하는 만큼 직접 만들어 갈 것”이라고 답했다.

방 대표는 두 달 전 론칭한 플랫폼 서비스에 대해서도 철학을 밝혔다. 팬과 아티스트의 직접 소통을 돕는 커뮤니티 플랫폼 ‘위버스’는 “기존의 플랫폼들이 채워주지 못한 소비자의 니즈에 맞춰 서비스를 개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커뮤니티 플랫폼 ‘위플리’에 대해서는 “전 세계 팬들이 같은 돈을 내면 같은 수준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 단순한 쇼핑 경험을 넘어 즐거움을 제공하고 싶다”라는 서비스 철학을 밝혔다.

콘텐츠 제작자로서 K팝에 대한 이야기도 풀어놓은 방 대표는 “뮤지션은 좋은 음악만 있으면 된다고 말하지만, K팝 아티스트는 음악뿐 아니라 매력적인 캐릭터와 훌륭한 퍼포먼스 등도 함께 갖춰야 한다”며 “모든 요소가 합쳐져 전 세계에서 사랑받는 보편적인 매력을 생성하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방탄소년단의 성공을 예감한 시기를 묻는 질문에는 “2015년 ‘RUN’이 인기를 얻은 후 2016년 ‘불타오르네’를 글로벌 시장에서 테스트하고 그 결과를 확인했을 때, 그리고 2017년 남미에서 성공적으로 아라나투어를 시작하면서”라고 했다.

## ‘장제원 아들’ 노엘, 음주운전까지 연이은 논란…비난↑

“경찰 수사 과정 성실히 임하고 처벌 달게 받을 것”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 아들이자 래퍼인 장용준(활동명 노엘)이 음주운전 혐의로 경찰에 적발, 사고했지만 비난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지난 7일 서울 마포경찰서에 따르면 장용준은 이날 새벽 서울 마포구 인근에서 술에 취해 차를 몰다가 오토바이와 부딪치는 사고를 냈다. 사고 당시 장용준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장용준은 경찰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아버지인 장제원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불미스러운 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리게 된 점 깊이 사죄드린다. 아버지로서 이루 말할 수 없이 참담한 심정”이라며 “용준이는 성인으로서, 자신의 잘못에 대한 모든 법적 책임을 달게 받아야 할 것이다. 다시 한 번 고개숙여 사죄드린다”고 사과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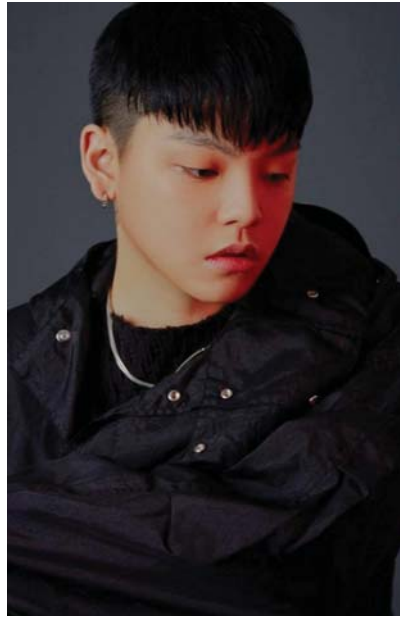
논란이 이어지자, 장용준도 7일

오후 소속사 인디고뮤직 공식 SNS에 “저의 불미스러운 음주운전 사고에 관해 사과의 말씀을 올리고자 이 글을 쓴다. 정말 죄송하고 변명의 여지가 없다. 피해를 입은 분께도 너무 죄송한 마음”이라며 “고개 숙여 사죄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경찰의 수사 과정에 성실히 임하고 그에 따른 처벌을 달게 받겠다. 정말 죄송하다.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평생 가슴에 죄책감을 갖고 반성하며 살겠다”고 재차 사과했다.

그러나 앞서도 여러 가지 논란을 빚었던 장용준이 음주운전까지 하자 그를 향한 비난의 강도는 더욱 커지고 있는 모습이다.

한편 장용준은 2000년생으로 지난 2017년 방송된 Mnet ‘고등래퍼’에 출연했으나 방송 후 과거의 여러 논란이 불거지며 하차했다.



해당 논란으로 당시 바른정당 소속 의원이었던 장제원은 SNS에 사과문을 게재, 대변인과 부산시장 위원장직에서 사퇴하기도 했다.

이후 장용준은 지난해 3월 래퍼 스윙스가 있는 인디고뮤직과 전속 계약을 체결한 뒤, 지난해 Mnet ‘쇼미더머니 777’에도 출연했으나 탈락했다. 지난 6월 음원 ‘SUMMER 19’을 발매했다.

## 영화 ‘유열의 음악앨범’, 11일만에

### 100만 돌파…김고은·정해인 감사 인사

영화 ‘유열의 음악앨범’ (감독 정지우)이 100만 관객을 돌파했다. 배급사에 따르면 ‘유열의 음악앨범’이 개봉 11일째인 지난 7일 100만 관객을 돌파했다. 특히 1년 만에 한국 멜로 영화가 100만 돌파에 성공했다.

‘유열의 음악앨범’은 1990년대와 2000년대 시대 배경뿐만 아니라 당시 극장가를 강타한 멜로 영화 흥행 러시 이후 간만에 레트로와 클래식의 멜로 감성을 무장한 영화 등장으로 화제를 모으며 흥행을 이어가고 있다.

이에 영화 속 완벽한 케미스트리와 열연을 보여준 주인공 미수 역의 김고은과 현우 역의 정해인이 100만 돌파 감사 인증샷을 공개했다. 이번에 전한 100만 감사 인증샷은 진심이 오롯이 담겨있을 뿐 아니라 웃음도 날려도 있게 만드는 두 배우의 전매특허 미소가 눈길을 사로잡는다. 더불어 함께 무대인사 중인 정지우 감독, 김국희, 김병만까지 함께 인사를 전했다.

먼저 김고은은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 덕분에 영화 ‘유열의 음악



앨범’이 100만 관객을 돌파했습니다. 너무나도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곧미수”로 손편지를 남겼다. 이와 함께 정해인은 “관객 여러분 덕분에 100만 관객을 돌파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라고 전했다.

한편 ‘유열의 음악앨범’은 라디오에서 흘러나온 노래처럼 우연히 만난 두 사람 미수(김고은 분)와 현우(정해인 분)가 오랜 시간 엇갈리고 마주하길 반복하며 서로의 주파수를 맞춰 나가는 과정을 그린 이야기로 전국 절찬상영중이다.

뉴스



### 조찬형, 테이에 훈훈

### 우정 “언제나 고마워”

‘테이 매니저’ 배우 조찬형이 테이를 향한 고마움을 드러냈다. 조찬형은 8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너랑 내가 실시간 검색어에 로또를 이기고 나란히 이름이 올라오다니, 언제나 고마워”라며 테이를 태그했다.

이어 “#mbc#전참시#전지적참견시점. 좋은 방송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피디님, 작가님, 그리고 응원 해주시는 모든 분들 너무 감사합니다”라고 덧붙이며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서 1, 2위를 차지한 모습이 담긴 사진을 캡처해 올렸다.

한편 두 사람은 지난 7일 오후 방송된 MBC ‘전지적 참견 시점’에 출연해 쌍방 매니저로서 모습을 공개했다. 테이는 조찬형의 매니저로서 그를 체크해 눈길을 끌었고, 조찬형은 방송 말미 “친구야 고맙다. 사랑한다”고 말해 훈훈함을 자아냈다.

광주만의 고유함과 독특함을 가진

# 광주 상설 국악 한마당

일 시 2019. 3월 ~ (매주 토요일 17:00)

장 소 광주 공연마루(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시민로 3)

내 용 시민과 함께 어울려 즐기는 전통, 퓨전 등 다양한 국악공연

문의 광주문화예술회관 (062-613-8351, 062-613-3181)

※ 관람료 무료

광주광역시